

미방위 아, 통신료 원가공개 입장 변경 음모론 제기

국감 현장

국회는 지난 3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정무위·법제사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교육위의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교과서 이념편향 공방,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감사에서는 권력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교문위**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문제로 또다시 파행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역사교과서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친일 문제가 주였다면 교육부가 8종 교과서에 대해 수정·보완 통보를 한 후에는 검증 과정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됐다”며 서남수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서 장관에게 “친일·독재 미화교과서의 수호천사 역할을 했다”며 “교과서 교과서의 문제점은 전혀 바로잡지 않은 반면 나머지 7종 대해서는 사실 오류뿐 아니라 관공까지 바꾸길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장관이 나머지 7종 예곡 세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소신껏 해달라”고 맞섰다. 특히 염 의원은 “야당 의원은 교과서 교과서의 짝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교과서 논란

교문위,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 공방...감사 한때 중단

법사위, 이춘석 “박사모 지회장, 국정원 외부조력자”

의 출발이 교회사 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때문이니 야당은 그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는 사실 규명을 하면 되는 것이며, 야당 발언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한 부분은 시정해달라”고 거들었다.

이 같은 양측의 대립 끝에 신학용 위원장의 감사 중지 선언으로 국감은 한때 파행했다.

◇**법사위** =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칭하는 모임) 지회장이 국가정보원의 외부조력자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서로 리트윗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정원은 직원이 쓴 것으로 알려진 댓글 중 1만5177건은 국정원과 상관없는 일반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반인 아이디로 알려진) KJK0588은 국정원이 관리하는 외부 조력자로 이 조력자와 국정원 직원이 서로 리트윗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확인해보니 KJK0588은 박사모 수원지회장의 아이디”이라며 “그렇다면 당시 국정원과 박근혜 후보 측이 서로 도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의 민간인 보

가 공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다가 국감이 일시 중단됐다. 최문기 장관이 지난 국감에서는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가 이날 태도를 바꾼 것이 원인이 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법원이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항소했다. 이에 지난 14일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래부가 항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했고, 최 장관은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최 장관은 “통신요금

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항소 취하 불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보름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동통신사의 음모가 있었던 것 같다”고 추궁했으며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동료의원을 상대로 ‘음모’라는 발언을 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반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김성곤 의원 밝혀

민주당 김성곤(여수 갑) 의원은 31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 참석, “어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개성공단에 다녀왔다. 개성공단은 표면적으로는 정상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의 정상화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6개월 중점으로 생각보다 기업들의 내상이 굉장히 깊었다. 그동안 바이어가 모두 끊겼고, 새로운 투자자도 나타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특별법 추진과 함께 경험 보



험금 상환유예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업들의 피해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항구적인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들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에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를 해제하고 개성공단을 정상화해야 한반도 평화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대선개입 강연’ 박승춘 고발기로

강기정 의원, 당시 동영상 공개...위증 혐의도 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31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대선과 관련된 강연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고 박 처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지난해 1월5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신년하례식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박 처장이 당시 강연에서 “금년에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의원은 기자회견

회에서 “동영상뿐 아니라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박 처장이 ‘국내 이념대결과 관련해 보훈처가 이념대결의 선제적 보훈정책을 통해 대처했다. 그래서 뜻밖의 바를 이뤘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선거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자인했다”며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동영상과 이날 국감 발언을 토대로 박 처장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12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강연 동영상에서 박 처장이 “각 분야 안보전문가를 양성해 나라사랑 강사단을 구성했고 공무원, 대학생,



교사, 일반인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위증죄의 근거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종걸 의원은 박 처장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박 처장에 대해 고발·해임은 물론 국감장에서 박 처장을 배제한 채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성공단 첫 현지 시찰 핵심으로 성사

한미방위비 분담금 등 ‘국익외교’ 제시

국감 인물

무소속 박주선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좀처럼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했다. 해외 공관 감사가 대부분이고 상임위원 대부분이 야당의 종진 의원들로 구성된 느슨한 감사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외교통일 국감은 어느 해보다 활발했다는 평을 받았다.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개성공단 현지시찰이 있었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국익외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서 있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박 의원은 우선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현지시찰을 제안, 민주당과 함께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특히 시찰일만 잡아 놓고 결정을 미루고 있던 지난달 14일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과 최근 남북 관계 경색 등 중대한 상황을 감안해 현지시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새누리당을 압박, 의결 후 곧바로 방북을 신청하게 했다.

박 의원의 아이디어와 독심으로 외통위는 국감 기간 중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박 의원의 해안은 외교부 국감에서 더욱 빛

을 밝혔다. 올 한국외교의 ‘뜨거운 감자’ 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미군기지 이전비용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등 우리 외교부가 밝히기 꺼리는 어두운 치부를 낱알이 공개하고 ‘국익 외교’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분석, 매년 국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수천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이 마치 공돈처럼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마지노선까지 대안으로 제시하는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 박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움직임에 반대하라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 우리 외교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은 반대하면서 동북아 군비경쟁을 야기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8개월간 박근혜정부 외교에 대해 ‘실종 외교’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실망 프로세스’라고 규정,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국익외교”를 한 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실망 프로세스’라고 규정,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국익외교”를 한 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실망 프로세스’라고 규정,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국익외교”를 한 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실망 프로세스’라고 규정,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년 지방선거 광주 모든 선거구 공천”

이정재 새누리당 시당위원장

이정재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난 31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광주지역 모든 선거구 후보자를 내 선거구별로 한 석 이상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현안에 대해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광주시가 추진하

는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 광주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송정-순천 철도개량 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사업 지원 등을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연결해 광주시 현안과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광주시민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 채권매각: 상담시 협의

월출동 공장
대지: 광주시소유 건물: 2353㎡
감정가격: 21억6천 채권매각: 상담시 협의

금남로4가 빌딩
대지: 800㎡ 건물: 4834㎡
감정가격: 69억3천 채권매각: 상담시 협의

쌍암동 나이트클럽
대지: 3238㎡ 건물: 3090㎡
감정가격: 89억7천 채권매각: 상담시 협의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굿모닝타운 분당 사무실)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총정리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사지가 17억7천천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함평군 영업 활동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층 주거지 504평 주거지에는 소형 APT나 다세대주택 대출4억 교환도 가능 10억5천
- 월릉·다세대적합지 북동상업지 64평 매도 1억6천
- 계림동 구호빌딩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회의실·사무동에 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9억5천
- 조선대학교앞 동명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용 건물4동 대지321평 건물592평 고시원176실 전세5천만원에 월 3500만원선 수입예상. 대출9억 임대수익생활에 적합. 소유권 이전은 법인이전 가능할 17억
- 공장부지 나주시 남평읍 비평정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가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4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아파트. 중도에 슬로시티와 엘도라도 가는 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도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가격은 전세1000에 월40선. 매대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구) 두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사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1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병동.저운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미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념하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